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및 대인관계 유능성이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미치는 영향

Mother's Management Behaviors of their Children' Peer Relationships: Relations with Belief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부교수 안 선 희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Associate Professor : Sun Hee Ahn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management behaviors of their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ir beliefs about social skills, recollectio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Subjects consisted of 258 mothers of 4- to 5-year-old children. The sample of mothers completed a series of questionnaires assessing their beliefs of social skills, their peer experiences, and the involvement activities of their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beliefs about social skills, recollectio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associated with the mother's management behaviors. Maternal memorie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were the best predictor of mother's management behaviors of their children's peer interaction.

주제어(Key Words): 또래관계 관리(management behaviors of peer relationships), 사회성 신념(beliefs about social skills), 아동기 또래관계(childhood peer relationships)

I. 서론

유아의 또래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심리적인 적응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면서 초

기 또래관계나 또래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을 밝히려는 많은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Parke와 Bhavnagri(1989)는 가족이 유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식을 연구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경로를 제시

하였다. 이 중 한 가지는 양육태도나 양육방식, 애착 등을 통해서 자녀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간접적인 경로라고 일컫는다. 이 경우, 부모 행동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자녀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만일 부모가 수용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와 양육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거나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면 결과적으로 또래유능성이 발달된다고 보고 있다.

다른 방식은 직접적인 경로로서,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녀의 또래관계에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또래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모의 노력으로 인하여 자녀는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또래유능성을 기르게 된다.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지도하고 관리하는 형태는 구체적으로 계획자(designer), 중재자(mediator), 감독자(monitor)로 나누어진다(Ladd & Coleman, 1992). 계획자 혹은 설계자로서의 역할은 자녀가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가 이웃에 있는 또래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게 하거나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나 활동에 참여시켜 또래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자녀의 또래접촉을 먼저 주선해주고 놀이 상대를 선택해 주거나 규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감독자는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고 수정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을 직접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가령,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을 감독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하는 것과 같이 이따금 교훈을 주고 지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놀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래관계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하는 등 자녀의 사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이 간접적이거나 혹은 직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자녀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 소개된 후 특히 직접적인 경로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지난 10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안선희, 1998; 박주희, 2000; Bhavnagri & Parke, 1991; Bullock, 1989; Kennedy, 1992; Ladd & Hart, 1992; Ladd, Profilet, & Hart, 1992; Mize, Pettit, & Brown, 1995; Profilet & Ladd, 1994; Russell & Finnie, 1990).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차이를 가져오고, 또래와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거나 주선해 주었던 부모의 자녀가 보다 넓은 또래관계망을 가지며, 지속적인

로 유지되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들과 친숙한 또래와 정기적으로 자유놀이 기회를 가지도록 할 경우 자녀들은 자유놀이 동안 또래로부터 상호작용을 위한 제안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가 자녀의 또래유능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녀의 사회적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모역할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또래상호작용과 또래관계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정도는 부모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자녀를 위한 또래활동을 주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다. 즉 많은 부모들이 가정 밖에서 자녀가 또래와 잘 지내기를 원하기는 하나 자녀의 또래활동을 지도하는 정도나 지원을 하는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전략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지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모가 개입하는 정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 중의 하나로 신념, 지식, 태도, 인식 등의 인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부모가 가지는 신념은 자녀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사회화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Mills & Rubin, 1990; Rubin, Mills, & Rose-Kransnor, 1989). 이는 부모가 아동발달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이나 생각이 양육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실체는 자녀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사회화되는지에 관한 신념의 한 표현으로, 발달에 대해 부모의 생각이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육방식의 유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만일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대해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술이 천부적인 특성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노력을 덜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 탓으로 돌린다면 부정적인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고 따라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은 고착화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실제로 사회성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또래관계 개입정도를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선행연구들(Mills & Rubin, 1990; Rubin *et al.*, 1989)은 어머니의 신념이 자녀에게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고 문제되는 사회적 행동을 관리하는 사회화 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사회적 기술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개입 정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Ladd와 Hart(1992)의 연구에서는 비형식적인 또래 놀이 활동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주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ohen과 Woody(1991)는 학령기 아동에게 사교성이 중요하

고 자녀의 사회적 성공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믿는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또래관계를 지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고 변화 가능한 특성이라고 보는 부모들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자주 관여하는 경향이 있었다(김희진, 1998; Mills & Rubin,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사회적 기술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개입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가치나 신념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을 목표로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경우 자녀들은 또래와의 사회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Rubin 등(1989)에 따르면 유아들에게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수정 가능하다고 믿는 어머니들의 자녀가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머니의 신념이 이들의 지도방식과 감독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참여가 자녀의 또래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어머니 자신의 사회적 유능성이다.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연구 중에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에 대한 기억이 자녀의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는 Putallaz와 동료들의 연구(1991)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아동기의 또래관계에 대해 회상하도록 한 결과,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기억을 떠올린 어머니들이 이들의 사회적 발달에 대해 참여가 높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유년기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어머니들이 오히려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희, 1998). 두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잠정적으로 어머니의 초기 사회적 경험의 개인차가 자녀의 사회적 삶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정도에 차이를 나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 역시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자녀의 또래 접촉을 관리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재운, 2001; Zahn-Waxler et al., 1992).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유능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지지해주고 감독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더 빈번하게 수행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Homel, Burns, Goodnow(1987)는 친구가 많고 지역사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어머니들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에 비해 사회적 망이 크고 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가진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Prinstein & La Greca, 1999)에서도 역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가 사회적 능력이 우

수하였고 또래들에게 더 수용되었다는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반면 사회적 조직망이 부족한 어머니들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더 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모델링이 자녀의 사회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Putallaz, 1987). 그리고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 망 크기와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의 관련성은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를 매개하여 생긴 결과일 수 있다. 즉 사회적 조직의 망이 넓은 어머니들은 사회적 접촉이 잦을 것이고,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 망에 자연스럽게 함류되어 또래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들은 자녀가 또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레퍼토리를 제공해주는 등 또래관계에 개입하는 행동을 자주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기술이 발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녀의 또래관계에 개입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금까지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이 자녀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화에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적 능력의 발달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며 유아기의 중요 발달과업으로 간주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부모가 자녀의 사회적 삶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모의 관리전략은 이들의 생각, 가치, 태도,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대인관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화 행동을 매개하는 인지변인 중에서도 어느 요인이 또래관계의 개입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자녀의 또래관계 개입을 조사하는 연구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련 분야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단일 변인을 사용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여러 인지 변인 중 어느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관여하는 직접적 경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가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 과정에 관한 신념, 아동기 또래경험 및 대인관계 유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과 또래관계 관리의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

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과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이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위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이나 부모 교육을 계획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는 만 4세와 5세 유아의 어머니 258명이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40명(54.3%), 여아가 118명(45.7%)으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으며, 연령은 만 4세가 146명(56.6%), 만 5세가 112명(43.4%)으로 만 4세 유아가 약간 더 많았다. 형제 자매의 수는 외동이가 49명(19.0%), 2명이 168명(65.1%), 3명이 41명(15.9%)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은 20대가 35명(13.6%), 30대가 206명(79.8%), 40대는 17명(6.6%)을 차지하였으며, 어머니 전체 중에 46.9%(121명)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129명(50.0%), 전문대졸이 73명(28.3%), 대졸이상인 56명(21.7%)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과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과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의 총 5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은 어머니가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한다.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Mize 등(1995)이 개발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제시된 사회적 기술에 관한 특성에 대해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총 6문항이며 응답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이 척도의 내적일관성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70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이란 사회적 기술이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이나 생각을 말

한다.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Mize 등(199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 5개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 5개를 제시한 후 이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물어본다. 응답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 부모나 교사의 교육이나 지도, 또래들과의 직접 경험의 3가지 범주에 대해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각 범주별로 점수를 합산한 후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믿음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86으로 산출되었다.

3)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

아동기 또래관계는 어머니 자신의 유년기 시절 또래관계의 질을 평가하며, 이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Putallaz 등(1991)이 개발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사회적 기술을 내포하는 7개의 문항(예: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혼자서 노는 것을 좋아하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로 하여금 아동기를 회상하여 자신의 또래관계의 특성이 어떠하였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또래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이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대인관계 유능성

어머니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일반적인 대인관계가 어떠한지를 평가한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Buhrmester와 Furman(1988)이 개발한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김화란(2001)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5)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사회적 환경을 계획하고 조정하고 수정하는 부모의 시도나 노력을 의미한다. 즉 자녀에게 놀이상황이나 놀이장소를 선택 해주거나 계획하며 놀이상대를 중재하고 또래와의 활동 및 상호작용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부모의 활동을 말한다. 아동의 또래관계 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Cohen(1989)이 개발한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이다. 원 척도 25개 문항 중에 2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조언/지원, 높은 관심, 계획, 감독/조정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언 및 지원은 또래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서적인 지지나 충고를 하는 활동을, 높은 관심은 자녀가 또래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어머니의 행동을 말한다. 계획은 자녀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놀게 하는

등의 놀이기회를 마련해주는 활동을, 감독 및 조정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감독하고 추적하는 활동을 말한다.

응답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개월 동안 해당 문항을 어느 정도로 빈번하게 하였는지를 6점 척도(①전혀 하지 않았다 ~ ⑥일주일에 여러 번)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영역별로 총점이 많을수록 그 영역의 활동을 자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통해 알아본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절차

유아교육기관을 통하여 어머니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각 학급의 교사가 유아들에게 안내문과 함께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회수 역시 유아들 편으로 이루어졌다. 총 37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262부이었고 이중에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58부이었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과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대한 일반적 경향

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을 분석한 기술통계 결과들

〈표 1〉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과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4.32	.42	
사회성 발달과정	긍정적 행동	친성	3.47	.55
		교육	3.53	.65
		경험	3.72	.54
	부정적 행동	친성	3.50	.65
		교육	3.61	.67
		경험	3.47	.60
전체	친성	3.49	.52	
	교육	3.57	.58	
	경험	3.59	.50	
아동기 또래관계		3.50	.70	
대인관계 유능성		3.67	1.24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	조언	4.46	1.12	
	관심	3.08	.90	
	감독	5.07	.83	
	계획	2.57	1.25	
	총점	3.66	.80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기술에 대한 중요성의 평균은 4.32로써 응답범위 1~5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어머니들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유아기 동안 자녀에게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성의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친성은 3.47, 교육은 3.53, 경험은 3.72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친성이 3.50, 교육이 3.61, 경험이 3.47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들이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경험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교육의 탓으로 보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한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 전체를 합하여 분석한 결과, 친성이 3.49, 교육이 3.57, 경험이 3.59로,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사회성의 발달은 타고난 성향보다는 교육과 직접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와 현재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우선 아동기의 또래관계 점수를 보면 평균이 3.50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대인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평균이 3.67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연구에 포함된 어머니들은 아동기보다 현재의 대인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또래관계나 상호작용에 대해 어머니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점수는 3.66으로 나타났다.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 중 4점이 “2주에 한번정도” 임을 고려해 볼 때 또래관계에 관여하는 정도는 크게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언은 4.46, 관심은 3.08, 감독은 5.07, 계획은 2.57로 나타나, 자녀의 또래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한 감독과 조언은 빈번히 하나 높은 관심과 계획에 해당되는 사회화 행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 또래관계 관리와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 또래관계 관리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인 상호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표 2).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는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r=.13, p<.05$),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중 교육($r=.14, p<.05$), 경험($r=.13, p<.05$), 아동기 또래관계($r=.25, p<.01$), 대인관계 유능성($r=.1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어머니가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고 교육이나 경험에 의해 사회성이 발

〈표 2〉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과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와의 상관관계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사회성 발달과정			아동기 또래관계	대인관계 유능성
			천성	교육	경험		
자녀의 또래관계관리	조언	.18**	-.07	.27**	.10	.22**	.20**
	관심	.10	-.00	.12	.12	.22**	.21**
	감독	.18**	-.02	.14*	.10	.15*	.14*
	계획	.06	.01	-.03	.10	.16**	.05
	충점	.13*	-.01	.14*	.13*	.25**	.19**

* $p < .05$, ** $p < .01$

달한다고 믿을수록 아동기 시절의 사회적 기술이 좋았다고 회상하고, 현재 대인관계가 유능하다고 평가할수록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하고 개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중 천성과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3.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이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이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성 발달과정의 세 하위요인 중 경험은 천성($r = .48, p < .01$) 및 교육($r = .54, p < .01$)과의 상관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에서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5.13, p < .001$) 투입된 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9%이었다. 독립변인 중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t = 1.89, p = .06$),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중 교육요인 ($t = 2.18, p < .05$), 아동기 또래관계 ($t = 2.73, p < .01$)가 유의하였으며 이 중에서 아동기 또래관계의 영향력($\beta = .20$)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과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믿음과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관계 및 현재 대인관계 유능성이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유아기에 사회적 기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대다수 어머니들은 자녀가 우수한 사회적 기술을 가지는 것에 대해 크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ennedy(1992)의 연구에서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학문이나 운동 능력보다도 다른 아이와 잘 지내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한 미국 연구결과(Mize et al., 1995)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미국 어머니들에 비해 사회적 기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문화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문화가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주변 사람들과 유대관계 형성 등 인간관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이것이 어머니의 신념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머니들이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천성보다는 교육과 경험 범주의 평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사회적 기술은 직

〈표 3〉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 대한 독립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t	F	R ²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71	.12	1.89+	5.13***	.09
사회성 발달과정	천성	-.22	-.06	-1.01		
	교육	.43	.14	2.17*		
아동기 또래관계		.71	.20	2.73**		
대인관계 유능성		.15	.05	.6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접적인 경험이나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발달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또래와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 경험이라고 제시한 다른 연구결과(Mills & Rubin, 1992; Mize et al., 1995)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들은 사회적 기술의 발달은 타고난 성향보다는 환경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환경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어머니의 신념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행동의 결과는 경험, 교육, 천성 순으로 귀인하였고, 부정적인 행동은 교육, 천성, 경험 순으로 돌리고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자녀의 부적절한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성인이 지도를 하지 않았거나 모델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은 또래들과 상호작용한 경험이나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믿고 있었다. 이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사회적 행동은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선행연구결과(Compas et al., 1982; Dix & Grusec, 1985; Gretarsson & Gelfand, 1988; Rubin & Mills, 1990)와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또래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부적절한 사회적 기술은 성인이 적절하게 훈육하지 않은 탓으로 믿고 있었다. 서구 부모에 비해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부모의 양육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깊이 관여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어머니의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 및 사회성 발달과정에 대한 신념, 아동기 또래관계와 대인관계는 자녀의 또래관계를 관리하고 개입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예측한대로 어머니가 사회적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사회적 기술이 경험이나 교육에 의해 형성된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아동기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 현재의 대인관계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가 또래와 상호작용할 때 지도와 감독을 더 많이 하였다는 김희진(1998)의 연구와 사회성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둔 부모가 자녀에게 또래들과 놀이상황의 기회를 더 많이 주선했다는 다른 선행연구(Ladd & Hart, 1992)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그리고 사회적 기술은 변화가 가능한 행동이라고 보는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자주 관여한다는 Mills와 Rubin(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성 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해 주었을 뿐 아니라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해 가지는 신념이나 지식, 생각 등의 인지과정이 양육방식의 선택이나 부모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도 지지해준다. 이들 결과로부터 부모가 가지는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다르며 부모의 기대가 달라지면 양육방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실재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된 신념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에 양육 실재에 관한 내용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행동에 선행되는 인지요소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동기 시절, 또래와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거나 현재의 대인관계가 좋다고 인식할 경우 자녀의 또래관계 지도를 더 자주 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기에 사회적 기술이 좋았다고 회상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국내의 기존 연구결과(안선희, 1998)를 재확인해주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자신의 아동기의 또래경험을 외롭고 걱정스러운 것으로 기억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Putallaz 등(1991)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Putallaz와 동료들(1991)은 과거 또래경험을 걱정스러운 것으로 떠올린 어머니들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적극적인 것은 이들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또래경험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본 연구가 이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시할 회귀분석 결과와 관련지어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는 별개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로부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아동기 경험을 조직하는 방식은 자녀의 사회적 행동을 위해 투자하는 노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자신의 대인관계를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를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정재운, 2001)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보편적으로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이 넓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하고 빈번한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또래와 상호작용이 많아지면 어머니는 자녀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연히 조언이나 감독을 하는 것과 같이 또래관계를 관리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 망의 크기와 자녀의 놀이친구와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Homel et al., 1987; Wahler, 1990)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들은 어머니

의 사회적 망의 크기가 자녀에게 사회적 접촉을 계획하고 추천하는 기회와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모델링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Howes(1987)도 어머니 자신의 사회적 망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의 발달과 우정 형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도움은 자녀의 또래관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자녀의 또래관계 관리에는 어머니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신념, 아동기 또래경험과 와 대인관계 유능성 중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자신의 부모와 안정애착으로 평가된 부모가 애착관계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는 연구결과(Main, Kaplan, & Cassidy, 1985)와 자신의 부모를 수용적이었다고 회상하는 어머니가 영아행동에 민감성을 보여주었다는 연구결과(Biringen, 1990)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아동기 또래관계를 긍정적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에게도 즐거운 또래경험(예: 또래수용이나 인기)을 기대할 것이고 이러한 기대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지도하는데 강한 동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의 또래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생각될 것이고 따라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주선하고 감독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자주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정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또래관계 돕기 과제를 더 쉽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또래관계에 더 빈번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송 정(1999)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어렸을 적 또래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인정받았다는 기억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자신에 대한 높은 자아가치가 자녀의 양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놀이상대를 중재하고 감독하는 행동을 빈번하게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결과로부터 어머니의 과거 또래경험에 대한 내적 표상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관계에 개입하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고 부모자신의 아동기에 관한 기억에서의 차이가 사회화 유형과 자녀의 또래관계의 개입행동에 대한 유인자극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 자신의 아동기 또래경험이 자녀의 또래관계를 관리하는 어머니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아동기 또래경험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부모가 자녀의 놀이친구와의 관계에 개입하고 감독하는 등의 또래관계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결

과로부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또래관계에서 잠재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유아들을 가려내어 가족단위의 중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가령,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을 재구성하여 과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현재의 사회적 관계 망을 넓혀주는 실질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아동기 또래경험은 기억에 의하여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은 인식에 기초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관련연구가 부족하여 서구의 문헌에 기초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는 제한점도 있다. 앞으로 어머니의 신념이 양육경험이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신념의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살펴보는 종단연구가 요청된다.

■ 참고문헌

- 김화란(2001). 부모의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3-53.
-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 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 정(1999).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 개입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희(1998). 어머니의 신념, 어렸을 시 또래관계 및 사회화 전략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계. *인간발달연구*, 5(2), 48-63.
- 정재윤(2001).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성, 자녀 또래관계 개입 행동과 유아의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havnagri, N., & Parke, R. D. (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Effects of age of child and sex of par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23-440.
- Biringen, Z. (1990). Direct observation of maternal sensitivity and dyadic interactions in the home: Relations to maternal thin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78-284.

- Buhrmester, D., & Furman, W.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Bullock, J. R.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anagement of 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263-269.
- Cohen, J. S. (1989).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Waterloo, Ontario, Canada.
- Cohen, J. S., & Woody, E. (1991).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he contributions of mothers' experiences, values and belief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Compas, B., Adelman, H., Freundl, P., Nelson, P., & Taylor, L. (1982). Parent and child causal attributions during clinical interview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77-84.
- Dix, T. H., & Grusec, J. E. (1985). Parent attribution process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NJ: Erlbaum.
- Gretarsson, S. J., & Gelfand, D. M. (1988). Mothers' attributions regarding their childre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64-269.
- Homel, R., Burns, A., & Goodnow, J. (1987). Parental social networks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159-177.
- Howes, C. (1987). Social competency with peers: Contributions from chil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 155-167.
- Kennedy, J. H. (1992). Relationship of maternal beliefs and childrearing strategies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22(1), 39-60.
- Ladd, G. W., & Coleman, C. (1992). Young children peer relationships: Forms, features and functions. In B. Spodek (Ed.), *Handbook of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pp. 57-76). New York: Macmillan.
- Ladd, G. W., & Hart, C. H. (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Are parents' and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 Ladd, G. W., Profilet, S. M., & Hart, C. H. (1992). Parents' manage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 Facilitating and supervising children's activities in the peer culture.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 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s* (pp. 215-253). Hillsdale, NJ: Erlbaum.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Mills, R. S. L.,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problematic social behavior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Mills, R. S. L., & Rubin, K. H.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maternal beliefs about children's social behaviors. *Merrill-Palmer Quarterly*, 38, 494-512.
- Mize, J., Pettit, G., & Brown, E. G. (1995). Mothers' supervision of their children's peer play: Relations with beliefs, perception, and knowled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11-321.
- Parke, R. D., & Bhavnagri, N. (1989). Parents as manage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241-259). New York: Wiley.
- Prinstein, M. J., & La Greca, A. M. (1999). Link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2), 197-210.
- Profilet, S. M., & Ladd, G. W. (1994). Do mothers' perceptions and concerns about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predict their peer-management practices? *Social Development*, 3, 205-221.
- Putallaz, M. (1987).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357-389.
- Putallaz, M., Costanzo, P. R., & Smith, R. B. (1991). Maternal recollections of childhood peer relationships: Implications for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03-422.

Rubin, K. H., & Mills, R. S. L.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al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419-435.

Rubin, K. H., Mills, R. S. L., & Rose-Krasnor, L. (1989). Maternal beliefs and children's competence. In B. H. Schneider, G. Attili, J. Nadel, & R. P. Weissberg (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313-337). Dordrecht,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Russell, A., & Finnie, V. (1990). Preschool children's

social status and maternal instructions to assist group entry.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03-611.

Wahler, R. G. (1990). Some perceptual functions of social networks in coercive mother-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53.

Zahn-Waxler, C., Denham, S., Ianotti, R. J., & Cummings, E. M. (1992). Peer relations in children with a depressed caregiver.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 317-344). Hillsdale, NJ: Erlbaum.

(2006년 9월 30일 접수, 2006년 11월 6일 채택)